

어간말음의 음운론적 강도

이 동 화

<목 차>

- | | |
|--------------|--------------|
| 1. 머리말 | 2.1. 자음간의 결합 |
| 1.1. 문제의 제기 | 2.2. 모음간의 결합 |
| 1.2. 음운론적 강도 | 3. 맺음말 |
| 2. 본론 | |

1. 머리말

1.1 문제의 제기

언어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언어 사실을 두고 논자의 해석 여하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이를테면, 중세국어에 있어서 이른바 삽입모음 ‘오/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나, 모음조화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언어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희박하다든가, 주어진 언어자료를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아예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필요하고도 충분한 언어자료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언어학자에게 부과된 임무임에 틀림없다.

가령, 음운론에서 가끔 논의되고 있는 ‘동모음삭제 규칙’의 경우, ‘가+아도→가도(去)’에서 삭제된 모음이 어간말모음 ‘아’인지, 아니면 어미두모음 ‘아’인지 분명치 않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은 자료에 대한 해석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다. 본고에서는 주로 활용에서 발생하는 음운현상에 대해 음운론적 강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런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2 음운론적 강도

음절구조의 관점에서 어떤 음이 지니고 있는 공명도(sonority)의 차이에

대해 Jespersen(1932, Hooper, 1976: 197 재인용)이 관심을 보인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음운의 강도에 대한 위계를 밝혀보려는 시도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음운론에 위계(hierarchy)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논문은 Foley(1970)로서, 영어에서의 음운론적 위계를 설정하면서 음운론적 강도는 음운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며 음성의 물리학적 정보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¹⁾ 또한 Zwicky(1973)는 영어에서의 동화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음운론적 위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Hankamer and Aissen(1974)는 Pali의 동화현상을 예로 들어 공명도의 차이에 따른 위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Hooper(1976)에서는 음절구조와 Pali의 동화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강도의 위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보편적 강도 위계를 제안하고 있다.²⁾

한국어에 대해서는 김진우(1973)에서 처음으로 자음동화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음운론적 강도를 암시하고 있다. 즉, [grave]의 자질을 이용하여 중자음(central consonants)은 변자음(peripheral consonants)에 동화되나 그 역의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차균(1976) 및 이병근(1977)에서도 자음동화 규칙들로부터 국어의 음운론적 강도의 순서를 도출하고 있으며, 정국(1980)은 중화(neutral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음중화와 자음동화에 따른 강도의 위계를 설정하고, 특히 Hooper(1976)의 보편적 강도 위계가 한국어에 적합하지 않음을 반박하고 있다.³⁾

지금까지의 여러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보편적 강도 위계(universal strength hierarchy)란 존재하지 않으며, 음운론적 강도는 음성학적 정보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음절구조나 동화, 삭제 등의 음운현상을 통해 특정한 언어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⁴⁾

1) Folex(1970: 89);

Phonological strength is a parameter of a theoretical system and has reality within that system; it does not refer to the physical strength of the elements.

2) 이 밖에도 Vennemann 등의 논의에 대해 Hooper(1976)에서 인용하고 있다.
 3) 국어의 음운론적 강도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승재(1980), 필자(1983) 등이 더 있는데, 이들은 자음 외에도 모음의 강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 필자(1983: 4)에서는, 인접하는 음운의 영향으로 동화나 삭제가 잘 되는 음운은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며 동화주의 구실을 많이 하는 음운은 그 강도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본 론

2.1 자음간의 결합

자음간의 결합에는 자음중화, 자음동화, 자음군 단순화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어간말음과 어미두음 사이의 음운론적 강도를 살펴보는데 필요한 자음동화에 국한하기로 한다. 자음동화에는 순음화, 연구개음화, 마찰음화, 유음화 등이 있다.⁵⁾

2.1.1 순음화

설정적 자음이 순음 앞에서 순음으로 동화되는 것을 순음화라 하는데, 중자음(中子音)이 변자음(邊子音)으로 되는 현상이다. (1ㄱ, ㄴ)은 순음화가 되나 (1ㄷ) 같이 설정적 비순수자음인 유음이나 (1ㄹ)처럼 비설정적 자음은 순음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설정적 자음이 설정적 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접동화이며 역행동화에 속하는 까닭에 어간말자음이 어미두자음보다 그 강도가 작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은 (2)와 같다.

- (1) ㄱ. $nác^h + put^h \rightarrow natpút^h \rightarrow nappút^h$ (낫+부티)
 $pát^h + póta \rightarrow patpóta \rightarrow pappóta$ (밭+보다)
 $sán + pút^h \rightarrow sampút^h$ (산+부티)
 ㄴ. $nac + man \rightarrow nanman \rightarrow namman$ (낫+만)
 $son + man \rightarrow somman$ (손+만)
 ㄷ. $tal + pút^h \rightarrow talbút^h$ (달+부티)(* $tampút^h$)
 ㄹ. $t'ək + póta \rightarrow t'ək póta$ (떡+보다)(* $t'əppóta$)
 $k'hóŋ + pút^h \rightarrow k'hóŋpút^h$ (콩+부티)(* $k'hompút^h$)

(2) 순음화규칙

$$\begin{bmatrix} C \\ +cor \\ --voc \end{bmatrix} \longrightarrow [-cor] / \text{---} \begin{bmatrix} C \\ +ant \\ -cor \end{bmatrix}$$

5) 이들 음운현상에 대해서는 김영기(1975), 김차균(1976), 이병근(1977), 정국(1980), 최명옥(1982), 최태영(1983) 등을 비롯하여 최근 많은 논문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적을 바탕으로 주로 경북 호부지역의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해 보려는 것이다.

4 嶺南語文學(第14輯)

2.1.2 연구개음화

연구개음 이외의 순수자음이 연구개음 앞에서 연구개음으로 되는 것을 연구개음화라 하는데, 중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큰 변자음 중에서도 순음이 연구개음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 연구개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접동화이며 역행동화인 이 현상은 (3 ㄱ-ㄷ)의 예에서 확인되며, (3 ㄴ)에서 유음은 연구개음화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구개음화규칙은 (4)로 나타낼 수 있다.

- (3) ㄱ. $m\acute{u}t+ko \rightarrow m\acute{u}kk'o$ (물+고)
 $c^hac+ko \rightarrow c^hakk'o$ (찾+고)
 ㄴ. $siin+ko \rightarrow siipk'o$ (신+고)
 $saam+ko \rightarrow saapk'o$ (삼+고)
 ㄷ. $sin+k'áci \rightarrow sipk'áci$ (신+까지)
 $pam+k'áci \rightarrow papk'áci$ (밤+까지)
 ㄹ. $saal+ko \rightarrow saalgo$ (살+고)(*saakk'o)
 $mul+k'áci \rightarrow mulk'áci$ (물+까지)(*mukk'áci)

(4) 연구개음화규칙

$$\begin{matrix} \{-voc\} \\ \{+cons\} \end{matrix} \rightarrow \begin{matrix} \{-ant\} \\ \{-cor\} \\ \{+back\} \end{matrix} / \text{---} \begin{matrix} \{-voc\} \\ \{+cons\} \\ \{+back\} \end{matrix}$$

2.1.3 마찰음화

설정적 장애음이 마찰음 s 앞에서 s로 되는 현상을 마찰음화라 하는데, (5 ㄱ, ㄴ)은 마찰음화의 예이며 (5 ㄷ)은 마찰음화가 되지 않는 예이다. 역시 직접동화이며 역행동화인데 이 현상은 규칙 (6)으로 표시된다.

- (5) ㄱ. $tit+so \rightarrow tisso$ (뜰+소)⁶⁾
 $kat^h+so \rightarrow kasso$ (갈+소)
 ㄴ. $c^hac+so \rightarrow c^hasso$ (찾+소)
 $cac+so \rightarrow casso$ (젓+소)
 ㄷ. $c\acute{a}k+so \rightarrow c\acute{a}kso$ (적+소)(*c\acute{a}so)
 $\acute{i}p+so \rightarrow \acute{i}pso$ (입+소)(*isso)

6) 서술형 종결어미 ‘-소’는 경북 북부지역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명령법 종결어미 ‘-으소’가 쓰이는데, 용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자료를 인용하였다.

(6) 마찰음화규칙

$$\left[\begin{array}{l} +\text{obst} \\ +\text{cor} \end{array} \right] \rightarrow [+cont] / - \left[\begin{array}{l} +\text{obst} \\ +\text{cor} \\ +\text{cont} \end{array} \right]$$

2. 1. 4 비음화

모든 장애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동화되는 것을 비음화라 하는데, 직접동화이며 역행동화이다. (7ㄱ, ㄴ)은 비음화를 보여주는 예이며, 이 현상은 (8)의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ㄱ. cap+nínta→camnínda(잡+는다)

tát+nínta→tannínda(달+는다)

chác+nínta→channínda(찾+는다)

mák+nínta→magnínda(떡+는다)

ㄴ. pát^h+man→pátman→pánman→pámman(밭+만)

pap+man→pamman(밥+만)

nác^h+man→nátman→nánman→námman(낫+만)

mók+man→móǵman(목+만)

(8) 비음화규칙

$$[+\text{obst}] \rightarrow [+nas] / - \text{---} [+nas]$$

2. 1. 5 유음화

유음을 가진 어간말 자음군과 n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어미두음 n이 선행하는 유음에 동화하는 것을 유음화라 하는데, 간접적 동화이며 순행동화라 할 수 있다. (9ㄱ)은 어간말 자음군이 유음과 장애음이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여주며, (9ㄴ)은 어간말 자음군이 유음과 비음이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유음이 삭제되기 때문에 유음화가 되지 않는 경우이며, (9ㄷ)은 어간말 자음군이 아닌 유음은 어미 n앞에서 삭제됨을 보여준다. 이 현상을 나타내는 규칙은 (10)과 같다.⁷⁾

(9) ㄱ. hált^h+nínsa→hallínda(할+는다)

paalp+nínta→paallínda(밥+는다)

pálk+nínta→pallínda(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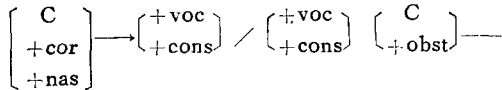
ílh+nínta→illínda(잃+는다)

7) 유음삭제의 음운론적 기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1981)을 참조할 것.

6 嶺南語文學(第14輯)

- ㄴ. taalm+ninta→taamniinda(담+는다)
- saalm+ninta→saamniinda(삼+는다)
- ㄷ. nool+na→noona(놀+나?)
- kiil+na→kiina(길+나?)

(10) 유음화규칙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접동화인 순음화, 연구개음화, 마찰음화, 비음화는 동화의 방향이 역행이고, 간접적 동화라 볼 수 있는 유음화는 동화의 방향이 순행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간접적인 동화는 직접동화에 비해 음운현상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어의 자음동화는 역행동화라는 방향이 자연스러운(natural)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따라서 어미두자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어간말자음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음운론적 강도 : 어간말자음 < 어미두자음

2.2 모음간의 결합

어간말모음과 어미두모음이 결합하여 생기는 음운현상에 대한 규칙에는 활음화 및 활음삭제, 모음순행동화, 동음삭제 등이 있는데, 어간과 어미 양자간의 음운론적 강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2.1 활음화 및 활음삭제

어간말모음 i, u, o가 어미두모음 a와 결합할 때, i는 j로, u, o는 w로 되는 것을 활음화라 하며, 활음형성이 된 뒤 일정한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 j나 w가 삭제되는 것을 활음삭제라 한다. 어간말에 후음(h,?)을 가진 어사도 유성음 사이에서 후음이 삭제되면 같은 음운과정을 밟게 된다. 이 때 특수한 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사가 활음화되는 것으로 보아 어미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어간말모음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⁸⁾

11) ㄱ. i+ato→jædo(이+이도)

8) 활음화와 모음순행 동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음운규칙인 바, 같은 동남방 언권에 속해 있는 언어라 할지라도 지역적인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다.

- o + ato → wado (오 + 아도)
- ㄴ. ci + ato → cjædo → cædo (지 + 어도)
 - c^hi + ato → c^hjædo → c^hædo (치 + 어도)
- ㄷ. po + ato → pwado → paado (보 + 아도)
- ㄹ. nōh + ato → nwado → naado (농 + 아도)
- ㅁ. ci? + ato → ciado → ciido (깃 + 어도)
- ㅂ. k'eu + ato → k'ewado → k'ædo (깨우 + 아도)
 - péu + ato → péwado → péado (배우 + 아도)

먼저 (11ㄱ)의 경우는 선행자음이 없는 어간말모음은 어미두모음과 결합하여 활음을 형성한 다음 활음이 삭제되지 않는 예이고, (11ㄴ)은 선행자음이 치찰음일 경우 어간말모음이 활음화된 뒤 다시 활음이 삭제됨을 보여준다. (11ㄷ)은 선행자음이 비치찰음일 경우 활음화가 이루어진 다음 활음이 삭제되면서 보상적 장음화가 발생하게 되며, (11ㄹ) 역시 어간말에 후음 h가 있어도 유성음 사이에서 그것이 삭제되면 (11ㄷ)과 같은 음운환경이 되므로 보상적 장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11ㅁ)의 경우 어간말의 후음? 이 유성음 사이에서 삭제된 뒤 활음화의 과정을 밟지 않고 오히려 모음순행동화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어간말음 o와 i의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1ㅂ)은 어간이 2음절 이상일 경우 활음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표면에는 보상적 장모음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활음화와 활음삭제의 음운현상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여기서는 주로 음운론적 강도에 대해 초점이 주어지므로 이 정도에 그치기로 한다. 이런 현상은 대략 다음의 음운규칙으로 표시할 수 있다.

12) 활음화규칙

$$\langle \# \left[\begin{array}{c} C \\ \left\{ \begin{array}{l} [+ant] \\ [-cor] \end{array} \right\} \right] \rangle \rightarrow \{i, u, o\} \rightarrow \left[\begin{array}{c} -voc \\ +high \end{array} \right] \leftarrow a$$

13) 활음삭제규칙 (1)

$$j \rightarrow \phi \left/ \begin{array}{c} C \\ -ant \\ +cor \end{array} \right. \text{---}$$

14) 활음삭제규칙 (2)

$$w \rightarrow \phi / \left\{ \begin{array}{l} C \\ \#V \end{array} \right\} \text{ --- (a)} \\ \text{--- (b)}$$

2.2.2 모음순행동화

어간말모음과 어미두모음이 결합할 때 활음화가 되지 않고 후행모음이 선행모음에 동화되는 것을 모음순행동화라 한다. 어간말에 후음(h, ?)을 가진 경우에도 모음 사이에서 후음이 삭제된 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음운환경이 주어지면 순행동화를 일으키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15) ㄱ. $\acute{o} + ato \rightarrow wado$ (오+아도) $p\acute{o} + ato \rightarrow pwado \rightarrow paado$ (보+아도) $k'o + ato \rightarrow k'wado \rightarrow k'aado$ (꼬+아도)ㄴ. $c\acute{u} + ato \rightarrow cwado \rightarrow coodo$ (주+아도) $t\acute{u} + ato \rightarrow twado \rightarrow toodo$ (두+아도) $n\acute{u} + ato \rightarrow nwado \rightarrow noodo$ (누+아도)ㄷ. $k'u + ato \rightarrow k'wado \rightarrow k'ado$ (꾸+아도)ㄷ. $ki + ato \rightarrow kiido$ (기+아도) $\acute{i}ki + ato \rightarrow \acute{i}gido$ (이기+아도)ㅁ. $k'\acute{e} + ato \rightarrow k'\acute{e}do$ (깨+아도) $s\acute{e} + ato \rightarrow s\acute{e}do$ (새+아도)ㅂ. $c'ok\acute{e} + ato \rightarrow c'og\acute{e}do$ (쪼개+아도) $pon\acute{e} + ato \rightarrow pon\acute{e}do$ (보내+아도)ㅅ. $noh + ato \rightarrow noato \rightarrow nwado \rightarrow naado$ (놓+아도)ㅇ. $j\acute{a}h + ato \rightarrow j\acute{a}do$ (낱+아도) $cii? + ato \rightarrow ciido$ (짓+아도)

15ㄱ)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음을 형성하여 그대로 있거나 또는 삭제되어 장모음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15ㄴ)은 활음형성을 한 뒤 음운이 축약되면서 그것이 바뀌는 경우인데, 15ㄷ)은 같은 어간말음을 가졌어도 다른 음운행위를 하고 있다. 15ㄷ)은 선행자음을 가진 어간말음 i에 어미두모음이 순행동화됨을 보여주고, 15ㅁ)은 1음절, 15ㅂ)은 2음절어간으로서 어간말음이 e일 때 역시 어미두모음이 순행동화됨을 보여준다. (15ㅅ)은 어간말 후음 h가 삭제된 다음 활음화와 장모음화가 일어남을 보여주며 15ㅇ)은 같은 음운환경이면서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모음순행동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음 자체가 지닌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로 보인다.⁹⁾

지금까지 논의된 모음순행동화규칙은 활음화규칙과 표리관계에 있는 바, 활음화가 어미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어간말모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모음순행동화는 어미가 어간에 동화되는 것이므로 그 반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나는 어간말의 음운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간말음에 후음을 가진 어사가 후음이 삭제된데 대한 보상적인 동화¹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활음화가 더욱 자연스런 음운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미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어간말모음보다 크다는 주장은 흔들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음운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은 16)로 나타낼 수 있다.

16) 모음순행동화규칙 (1)

$$a \rightarrow \left[\begin{array}{c} V \\ +high \\ -back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C \\ +obst \\ -cor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V \\ +high \\ -back \end{array} \right] Vst$$

17) 모음순행동화규칙 (2)

$$\left[\begin{array}{c} V \\ -round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h \\ ? \end{array} \right\}] Vst \quad a \Rightarrow \begin{array}{ccc} 1 & 2 & 3 \\ & \phi & 1 \end{array}$$

2.2.3. 동음삭제

어간말모음 a나 ə가 어미두모음 a 앞에서 삭제되는 것을 동음삭제라 하는데, 이때 삭제된 모음이 어간의 모음인지 어미의 모음인지 음성적으로 구별하기가 힘들다. 우선 다음의 예를 먼저 보기로 하자.

- 18) ㄱ. ká+ato→kado(가+아도)
 nā+ato→nado(나+아도)
 sá+ato→sado(사+아도)
 cá+ato→cado(자+아도)

9) 동남방언에 있어서 활음화와 모음 순행동화는 지역적인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경북지역 중에서도 대체로 북부지역은 활음화의 경향이 강하고 경남 지역과 접하고 있는 남부지역은 모음순행동화가 활발한 편이다.

10) 필자(1983: 32)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타당성 여부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ㄴ. $ch^h a + ato \rightarrow ch^h ado$ (차+아도)

$t^h a + ato \rightarrow t^h ado$ (타+아도)

ㄷ. $s\acute{o} + ato \rightarrow s\acute{o}ado \rightarrow s\grave{a}do$ (서+아도)

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분절음소의 층위에서는 어간말모음과 어미두모음 중 어느 것이 삭제되었는지 분명히 알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초분절음소의 층위에서 본다면 18ㄱ, ㄷ)의 예에서 알 수 있 듯이 어간말음의 고조(H)가 삭제되는 것으로 보아 어간말모음이 삭제된다고 할 수 있으며,¹¹⁾ 어미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어간말모음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¹²⁾

그런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철고 있음이 사실이다. 동음삭제현상에서 어간말모음이 삭제되었다고 보는 견해로는 최명옥(1982: 123), 신승원(1982: 23), 배병인(1983: 69), 서보원(1984: 34), 이시진(1986: 57) 등이 있고, 어미두모음이 삭제되었다고 보는 견해로는 이승재(1980: 93), 최태영(1983: 109), 이동화(1983: 48) 성인출(1984: 29) 등이 있다. 전자는 활음화를 통해 어미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크다는 최명옥(1982)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어간이 지니고 있는 문법적 기능이 어미에 비해 더 크다는 인식 때문에 어간의 음운론적 강도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운의적인 사실을 너무 강조하는 후자의 견해는 타당성이 희박한 것이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동음삭제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은 19)로 나타낼 수 있다.

19) 동음삭제규칙

$$\left[\begin{array}{c} V \\ +back \\ -round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text{---}]Vst \left[\begin{array}{c} V \\ +back \\ -round \end{array} \right]$$

이제까지 모음 간의 결합에서 생기는 음운현상을 통하여 볼 때 어미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음운론적 강도 : 어간말모음 < 어미두모음

11) 최명옥(1982: 123)에서 동음삭제에 대해 초분절음소의 입장에서 논의한 바는 없으나, 성조 표시를 하여 이런 사실을 암시한 바 있다.

12) 'ká + iman → káman(가+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미두모음 i 가 어간말모음 뒤에서 삭제되나, i 삭제규칙은 동음삭제규칙과 음운과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자 한다.

3. 맺 음 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음동화에 있어서 직접동화인 순음화, 연구개음화, 마찰음화, 비음화는 동화의 방향이 역행이고, 간접적 동화인 유음화는 그 방향이 순행인 점으로 볼 때 국어 자음동화의 방향은 역행적인 것이 자연스런 음운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음에 있어서의 음운론적 강도는 어미두음이 어간말음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2. 모음간의 음운현상에 있어서 활음화와 삭제, 모음순행동화, 동음삭제 등을 검토해 볼 때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 역시 어미두음이 어간말음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활음화가 모음순행보다 더욱 생산적일 뿐 아니라 동음삭제에 있어서 성조의 변동현상을 관찰해 본 결과 어간말모음이 삭제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3. 음운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음운외적인 사실, 이를테면 통사, 의미론적 기능 등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다. 동음삭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어간은 어휘형태소인 실질부요어미는 문법형태소인 형태부라는 '통사·의미론적 정보 때문에 자료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셈이다.

4. 국어에서의 음운론적 강도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음에 있어서는 비교적 구별이 쉬운 편이나 모음에 있어서는 음운 사이의 강도를 측정하기가 매우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운론적 강도의 개념은 음운론적 기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기,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김진우, 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어학연구』(서울대) 9-2.
 김차균, 1976, "국어의 자음접변", 『언어학』(한국언어학회) 1.
 배병인, 1983, "산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서보월, 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안동문화』(안동문화연구소) 5.

- 성인출, 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계명대 대학원.
- 신승원, 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대학원.
- 이동화, 1983,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영남대대학원.
- _____, 1986,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와 검토”, 『영남어문학』(영남어문학회) 13.
- 이병근, 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국어국문학논총』(이승녕선생고회기념)
- _____, 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한글학회) 173.4호.
- 이승재, 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 이시진, 1986,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대학원.
- 정 국,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 D,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 최명옥, 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국어학회) 4.
- _____,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 최태영, 1983, 『방언음운론—전주지역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 Foley, J., 1970, *Phonological Distinctive Features*, in *Folia Linguistica*.
- Han Kamer & Aissen, 1974, *The Sonority Hierarchy*, Natural Phonology Parasession, Chicago Linguistic Society.
- Hooper, J.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Zwicky, A. M., 1973, *Note on a Phonological Hierarchy in English*, in *Linguistic Change and Generative Phonology*, India University.